

스커트의 변천

이종숙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부

1. 서론

스커트는 여성을 표현하는 심볼이기도 하며 스커트를 입은 모습의 인물 실루엣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여성의 마크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하반신을 커버하는 의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커트는 오랫동안 유행의 초점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창작의 흥미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스커트」라는 말은 특히 여성 의복의 중요한 아이템을 일컫는 말로 이용되고 있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예로 18세기에 출판된 존슨박사의『영어사전』을 보면「스커트」의 의미는 의복의 완만한 테두리 또는 웨스트에서 밑으로 늘어지는 부분, 옷이나 장식의 테두리나 가장자리, 단이나 경계라고 되어있고, 여성의 하반신 의복이라는 의미는 없다.

그러면 스커트가 독립된 여성의복의 아이템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옛날 여성의 초상화를 보면 확실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스커트가 그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독립된 아이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드레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드레스와 일체의 것으로 생각되어 현대의 의미의 스커트는 아직 의식되지 않았었다고 생각된다.

아마 여성의 드레스가 상하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다시 말해 드레스의 하반신이 커졌기 때문에, 또는 복잡한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이 부분에 스커트라는 언어가 적용되었다고 생각 된다.

특히 20세기 부터는 직물의 개발, 시대적 상황,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스커트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개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욕구는 나날이 증가 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커트의 변천 과정을 스커트의 시대적 변화가 아니고 스커트의 변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위치를 재 정립하고, 여성 의복의 중요 아이템중 하나인 스커트의 디자인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그 의가 있다. 또한 여기서 다루는 스커트의 변천은 스커트라는 언어 그 자체의 정의에 구애 받지 않고 스커트가 여성의 하반신의복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고 그 변화와 의미를 재구성 하는 것으로 한다.

2. 스커트의 변천과정

◆ 스커트의 의식과 형의 발견

중세의 드레스는 간단히 말해 코트의 겹쳐 입기였다. 코트는 단순한 튜닉이며 자연스럽게 몸에 따라 끝자락으로 가면서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이 코트의 하반신에 후레아를 넣는 것, 즉 좁고 긴 삼각형의 천을 서로 맞추는 것이 스커트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한 최초이지 않았을까. 이 방법을 가능하게 한 것은 14세기 후반 이후의 울 직물의 변화에 있다. 축음을 반복한 안정된 라샤지가 직물의 주체가 됨으로써 천의 삽입이나 단춧구멍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몸에 피트 하거나 넓이거나 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하반신의 천의 양과 트레인(train)의 길이가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긴 로브(robe)를 끄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고, 트레인과 천의 삽입이라는 방법에 의해 로브의 스커트에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중세후기부터이다.

로브 안에 입었던 코트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밖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하반신에 변화를 준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 수법이다. 이 코트에 해당하는 영어에 게르만어 계의 커틀(kirtle)이 있고, 프랑스 어원의 코트(cotte)와 거의 같은 의복을 가리킨다. 하반신 쪽은 스페인 전래의 화진젤(farthingale)이 있고, 프랑스식의 허리에 대는 것과 드림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커트가 자연스러운 형을 취하지 않았던 것에 큰 특징이 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화진젤은 후프(hoop)를 만들어 스커트에 댄 것에서 유래한다. 후프에 의해서 원추형으로 넓힌 스커트는 천 이외의 재료를 이용해서 의복을 몸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최초의 시도가 되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상 목록²⁾에는 페치코트라는 언더 스커트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더스커트의 형을 하고 있으며 여왕의 옷을 만드는 기록에 플란넬이나 얇은 울의 페치코트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보온용의 언더 스커트였다고 생각된다.

◆ 페치코트의 시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페치코트가 중요시 된다. 스커트가 자연스런 형으로 돌아가고 인공적인 허리에 대는 틀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도 모른다. 페치코트와 로브와의 절묘한 매치가 포인트가 된 것은 17세기에 자주 보이는 경향인데, 페치코트가 로브의 색과 달라서 눈에 띄거나 레이스 장식이 훌륭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다. 기교적으로 부풀리진 않았지만 2장의 스커트를 대립시키거나 혹은 페치코트의 장식을 돋보이게 해서 드레스의 하반신 연출이 겨루어지던 시대이다. 양쪽 다 장식의 중심은 레이스나 천의 아플리케였으며, 이것은 의복용

의 문양을 짜 넣은 실크의 생산 양이 아직 적고 금은사를 이용하는 장중한 의복용의 직물이 주체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Falbara 와 Guirlande

18세기의 스커트는 프랑스의 로브로 대표된다. 이당시의 로브는 좌우의 양 허리에서 남는 분량을 개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리 양 옆이 볼륨이 생긴다. 따라서 로브의 스커트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퍼지게 되며 원형으로 퍼지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장식이 로브의 갈라진 양쪽의 앞면 테두리와 패치코트의 단 쪽에 오는 것도 이 로브의 특징이다. 구조가 간단하면서 장식하는 곳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대를 잘 알기 쉬운 스커트이다.

로브와 패치코트에 항상 붙어있는 주름장식 등은 팔바라(falbara-옷자락 주름장식), 루슈(ruche), 브이요레(bouillonner-거품이 생김의 뜻으로), 길랜드(guirlande-꽃장식)로 불려져 새로운 장식에는 멋있는 호칭이 붙여졌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했던 장식은 1884년대 이후부터 사라져갔다. 유적의 발굴이 활발해지고 각지의 유적을 그린 화집이 소개되면서 고대 세계로의 관심은 높아져갔다. 그 영향은 실내 장식이나 의복에도 미쳐서 로코코의 장식성보다는 심플한 고전시대의 라인과 장식이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면의 수입이 금지되어 유럽의 면 생산과 프린트 업이 부흥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복 재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주얼한 드레스가 늘어난 결과 스커트로부터 불필요한 장식을 없앴다.

◆ 볼륨과 허리의 시대

그러나 이런 큰 변화는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의 반동적인 원 체제의 시대에는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레스에 스커트 그리고 모자나 머리형에 확실하게 구시대로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커트에 또다시 장식을 하게 되고 가는 웨스트부터 옷자락으로 향해 스커트는 넓어지기 시작했다.

직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발달한 결과 대형 의료품 점이 출현할 만큼 천이 풍부하게 되고 1850년대에는 그것이 백화점으로 성장해 서민의 소비 붐은 열기를 더해갔다. 여성 의복의 유행변화는 이유를 불문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유행이 생산자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영향은 대단한 것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한 직물의 기술이나 속옷의 개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유행 상품은 광범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크리놀린의 유행도 이런 배경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당시의 크리놀린은 너무 큰 탓에 위험성도 있었고 바람에 날리면 우아함이 엉망이 되는 때도 있었을 것 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모르는 사이에 난로의 불뚱이 스커트에 스쳐서 타버리는 참사도 간간이 있었다. 이런 위험한 부자유스런 의복에 반발하는 그룹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생겨난 것도 납득할 만 했다. 개척지에서 일했던 여성의 평가는 유럽과는 달랐었고 선거권의 획득요구는 당연했을 것이다.

70년대부터 80년대의 스커트는 허리의 볼륨으로 초점이 옮겨진다. 이것도 천을 뒤로 모으는 단순한 방법뿐이 아니고 허리에 대는 버슬(bustle)이 고안되어 하반신의 뒷부분이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었다.

◆ 다리의 시대

20세기 의상의 장래가 폴 포와레에 의해서 방향 지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서 20세기를 여성의「다리」의 해방의 시대로 본다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쟁터로 간 남자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버려버렸고 동시에 여성은 사회 안에 확실히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자각은 1920년대에 와서 확실하게 의복이나 행동에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으로 다리가 스커트 밖으로 나오고 처음으로 스포츠에 적절한 스포츠 복이 풍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플리츠스커트의 출현이 그 중 하나이다. 여성다운 풍만한 육체보다는 날씬하고 젊음이 넘치는 모습이 이상적이 되었다.

의료통제 속에서 모드도 그림자를 드리웠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때까지 참전국이 경제통제하에 있어 결핍생활을 강요당했던 1947년에 막 개점한 디올이 뉴욕을 발표했다, 50년대 중반까지 나일론의 페치코트로 볼륨을 넣은 스커트가 전 세계에 유행되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부터 권위 있는 패션은 반항의 대상이 된다. 스트리트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오프꾸뛰르와 기성복을 거절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이때 스트리트에서 생겨난 것이 미니스커트이다. 무릎 위 20cm길이, 거기부터의 긴 다리, 보기 흉하다고 여겨왔던 무릎을 노출한 미니스커트는 젊은 세대로부터 기성세대와의 도전이었으며 스커트 길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6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히피들이 첫 집회를 연 것을 계기로 그들의 행동이나 사상, 옷차림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지만, 너무도 쉽게 여러 가지 규제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반발이나 위기감 또한 컸다. 그러나 이 풍조는 많은 젊은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끼쳐 소재나 형태를 반영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옷 만들기가 70년대에 추진되었으며, 천과 육체의 관계를 추구한 여러 디자이너들은 스커트를 의식하거나 구매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해 하반신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스커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하반신의 의복도 지구규모로 보면 민족의 전통이나 종교의 풍습을 아직도 남기고 있는 지역도 있고 차라리 그러한 특수성이나 차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 어떤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보면 또다시 신비나 의미를 원하게 되는 것이 패션이기도 한 것이다.

3. 결론

긴 역사에 걸쳐 만들어진 스커트의 신비는 이렇게 해서 너무도 간단하게 무너져 버렸지만, 20세기 후반의 패션은 스트리트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스커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나 볼륨, 길이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추구되어 왔고 지금은 스커트라는 예부터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하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스커트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스커트의 변천 과정을 토대로 여성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착용감 좋은 스커트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추구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S. Johnson, A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1755
- 2) J. Arnold, Queen Elizabeth's wardrobes unclosed. 1988